

사파티스타 운동 연구에 대한 인류학적 소고*

정이나**

단독/부산외국어대학교

Jung, Ina (2016), "An Anthropological Approach on Zapatista Movement's Researc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Zapatista movement, which exploded on January 1st, 1994 in the southernmost Mexican state of Chiapas, utilizing an anthropological approach. In order to deal with the limits of macro-level discourse as a data source for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logic of practice in social movements like Zapatistas, this paper is aimed at exploring the relevance of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social reality and practice in social movements research.

Key Words: Zapatista, anthropological research, social reality, social movement, indigenous movement

들어가는 말

약 20여 년 전 멕시코 치아파스주(州) 지역에서는 1994년 1월 1일 일명 사파티스타 봉기라는 원주민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마침 이 날은 멕시코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는 시점이기도 했으며, 줄곧 이어져온 개방과 시장 논리의 확대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20세기 세계경제 불황과 그 여파로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를 휩쓸었던 경제 위기, 이와 더불어 1989년 사회주의 블러킨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를 이끄는 듯 했다. 급기야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론을 들고 나오기에 이르렀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결 구도는 이렇게 마무리되어

* 본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논문을 끝까지 세심하게 읽고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Ina Jung is research professor of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Email: inamundo@bufs.ac.kr).

가는 듯 했다. 1980년대 이후 이미 세계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로 급선화하면서 그 사회적 여파는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 위기와 함께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야기한 사회적 불평등과 심화되는 빈곤은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동반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자본 중심으로 재편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구조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 수백 년간의 식민지 역사를 통해 고착화된 사회적 불평등이나 대다수 인구가 겪는 빈곤의 일상화는 논외로 치더라도 말이다. 전 세계적인 ‘트랜드’가 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민들의 삶을 피폐화 시켰으며, 이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닌 갈등의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89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일어난 카라카소(Caracas), 브라질의 무토지 운동,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Piquetero) 운동까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는 이른바 민중운동(Movimiento Popular)이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저항 운동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산발적인 항의가 아닌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지형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999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Hugo Chávez)대통령의 21세기 사회주의는 이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1994년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에서 일어난 사파티스타 원주민 운동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가져온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서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감돌고 있던 심상치 않은 징후들의 하나였다. 그리고 이 운동은 멕시코 국내외적으로 높은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으며 새로운 방식의 대안사회 운동이라는 평가와 함께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 논문은 바로 이 같은 높은 국제적 관심과 다양한 평가 속에서 진행되어온 사파티스타 운동 연구에 대한 인류학적 소고이다. 이는 사파티스타 운동을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운동의 전형적인 예로 바라보는 시각, 혹은 반자본주의 대안세계화운동의 한 부류인 자율주의 운동(Kim 2010, 122; Lee 2010, 133-134) 등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거대 담론적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현실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회운동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고찰이다.

본 연구의 구성과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국내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주요 연구 경향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본 논문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후 저자가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최근 현지조사 기간 동안 얻은 자료 및 인터뷰, 관련자 면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의미를 재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파티스타 운동을 연구하는 거대 담론적인 분석의 틀이 간과하게 되는 운동의 실천적 혹은 현실적 문제 등의 성격을 파악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인류학적 현지조사 연구의 필요성과 의미, 그리고 연구방법론으로서 현지조사에 대한 간략한 소고를 끝으로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이는 멕시코 사파티스타 원주민 운동 연구를 보다 경험적이고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사파티스타 운동의 현실적 측면들을 보완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사파티스타 운동을 이해하는 다소 ‘추상적’이고 ‘이상화’된 방식이 아닌 멕시코의 구체적인 사회정치적인 맥락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파티스타 운동의 본질적 성격과 의미를 재고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파티스타 운동 연구

사파티스타 운동 연구 경향과 성격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평가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로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에 대항하는 혁명운동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대표적인 연구로는 신정환(Sin 1999)의 “마르코스: 사파티스타의 새로운 혁명”, 송기도(Song 2001)의 “사파티스타 그들은 새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한 부류로 이해하여 현실 사회주의 붕괴로 인해 만들어진 대안적 사회질서 구상의 공백을 대체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반자본주의 저항운동의 형식인 자율주의 운동의 한 부류로 바라보는 연구(Lee 2010; Kim 2010)로, 멕시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여 나타난 남미 반자본주의 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럽중심의 근대성 논리와 개발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기존의 이념이나 담론의 틀로부터 벗어나 있는

대안사회운동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도 이 같은 경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Cho 2015).

세 번째로는 원주민 고유의 문화적 권리와 자치권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진 접근으로 탈근대 혹은 탈식민적 운동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Kim 2008; 2013; Park 2004). 원주민 문화를 포함하는 고유의 권리에 대한 보장, 자결권, 더 나아가 원주민 자치(*autonomía*) 실현의 문제 등에 주목(Kim 2001; 2008; Park 2002)하고, 부분적으로는 (마야)원주민 문화 고유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문화적 권리를 주장한 연구(Chung 2005)등도 이에 포함된다.

실제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연구 경향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수탈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에 저항하는 대안적인 사회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운동이자 대안사회운동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향인 탈근대 혹은 탈식민적 관점은 근대 ‘문명’의 지배자들에 의해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와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원주민들에 의한 원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입장(Kim 2008, 87)과 별반 다르지 않다.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인 우주관에 비추어 사파티스타 운동이 실현하려는 정의나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분석하거나, 근대 ‘문명’의 지배로 구축된 식민지적 권력기반의 변화를 증명함과 동시에 탈근대적인 유토피아적 대안사회 혹은 이를 위한 탈근대적 변혁이론(Kim 2010; Cho 2004)에 대한 연구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관점의 차이는 국외 연구자들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파티스타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Basta*(이제 그만)의 저자이자 인류학자인 조지 콜리어(George A. Collier)는 치아파스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바탕으로 유물론적 역사관에 기대어 필연적인 사회적 결과물로 분석하는 반면, Mendoza(1999)나 Nash(1995) 등은 정체성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신자유주의로 인해 상실되어 가는 원주민 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차원의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사파티스타 운동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전자가 계급적 차원을 넘어서는 원주민들에 의해 주도되는 원주민 세계를 만들어가는 운동이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후자는 식민지 유산의 경제적 지배질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민 운동을 논의한

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Kim 2008, 86-87)를 지적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멕시코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연구는 상이한 연구 분석틀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파티스타 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위기의 정점에서, 한편으로 계급적 요구에 중점을 두는 반자본주의 대안운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탈식민적 저항운동의 한 형태로 분석되었다. 이는 두 연구 경향의 상이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사파티스타 운동이 갖는 기존의 사회질서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적 성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사파티스타 운동은 지난 500여 년간 구축되어온 원주민 수탈과 착취 역사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수많은 반란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이는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적 모순의 정점에서 자생된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나 혹은 계급적 요구가 배제된 문화적 권리나 정체성 회복을 중심으로 보는 탈식민적 접근과는 다른 방식의 이해를 요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잠시 살펴볼 것이다.

사파티스타 원주민 운동 출현의 의미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유럽에게는 부와 ‘영광’의 역사이자 이후 300여 년 간 아메리카의 명실상부한 지배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동시에 유럽 영광의 역사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는 죽음과 재앙의 시작이었고 무차별적인 착취와 억압의 처참한 역사의 시작이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운동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원주민들의 반란은 스페인 식민지 시기부터 끊임없이 있어왔다. 물론 원주민들의 ‘폭동’(motín)이 ‘운동’(movimiento)이라는 조금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지만 말이다.¹ 이 기간 동안 원주민 ‘봉기’에 대한 연대기 작가들의 기록, 스페인과 과테말라 등지의 식민지 자료청

1 현재 멕시코 치아파스주 지역에서 과거 식민지 시기부터 일어났던 원주민 ‘운동’을 sublevación, rebelión, alzamiento, levantamiento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다 (Peláez 2011, 346). 맥락에 따라 있을 수 있는 번역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각각 반란, 모반, 봉기, 쫓기 등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에 보관되어 있는 여러 사료들에 근거하여도 수많은 원주민 ‘반란’의 역사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² 그렇다면, 20세기 말 출현한 사파티스타 운동은 이 같은 수많은 원주민 반란 역사의 연장선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사파티스타 운동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는 1994년 1월 1일 멕시코 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질서의 공격적인 정책들로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었다. 이때, 멕시코 남부의 차아파스에서 원주민 봉기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이후 줄곧 이 원주민 봉기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반 신자유주의 운동 사례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 이하 EZLN)으로 알려진 이 세력들의 중심에는 단순히 원주민뿐만 아니라 과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과 같은 좌파운동의 경력이 있는 백인이나 메스티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옥타비오 파스(Octavio Paz)와 같은 멕시코의 유명한 문인들의 거침없는 비판의 근거가 되면서, ‘외부세력’의 ‘개입’이라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리고 사파티스타 봉기는 ‘급진적’인 좌파 엘리트들이 주도하고 ‘무지한’ 원주민을 호도한 결과로 치부되었다.

옥타비오 파스와 같은 보수 논객들의 이 같은 비판은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적 사고와 라틴아메리카 500년 식민지 역사의 결과물인 ‘인종주의’적 편견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해석에 불과하다. 결국 그에게는 마르코스 부사령관과 같은 백인 계열의 집단은 사파티스타 운동의 외부세력인 셈이며, EZLN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원주민들은 그들의 지도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수 논객들에게서 나타나는 사회적 주체들의 자발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그에 대한 과소평가는 원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부재이기도 하다. 즉 라틴아메리카에서

2 스페인과 과테말라 식민지 자료청에 근거한 약 150건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폭동(motin)이 60건, 반란(sublevación)이 1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중 2건은 17세기 말, 약 28건의 대부분은 18세기 후반, 그리고 나머지는 19세기 초반 20년 간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Peláez 2011, 20-21). 위에서 언급한 식민지 관련 고문서들은 스페인 세비야 소재, 원주민 자료청(Archivos de Indios), 과테말라 시티에 위치한 중미 자료청(Archivo de Centroamérica) 등이며, 스페인 식민지 당시 17세기 말 과테말라 지역의 연대기 작가 Fuentes y Guzmán(푸엔테스 이 구스만)의 기록 등을 기반으로 하였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원주민 운동은 원주민에 대한 제도적 배제와 착취, 그리고 탄압의 역사라는 연장선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³

반면, “치아파스, 토지와 사파티스타의 반란”이라는 부제로 출판된 저서 *Basta*(이제 그만!)의 서문을 열고 있는 피터 로세트(Peter Rosset)의 분석은 아주 적절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파티스타 반란의 원인은, 그 무엇보다 그 봉기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과 농촌지역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라는 연관성에 비추어 볼 때, 바로 토지다. 이것이 왜 멕시코의 치아파스주의 원주민과 농민들이 무기를 선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Collier 2005, vii)고 설명하면서, 멕시코 남부 원주민 거주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이 반란의 구조적 원인과 성격은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사우스 센트럴(South Central Los Angeles) 지역의 그것과도 결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20세기 후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처참한 사회적 결과로 고통 받는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이나 농민, 더 나아가 제 1세계의 주민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파티스타 운동 출현의 구조적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순 축적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민중운동(movimiento popular)의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와 더불어, 마침 1980년대부터 마야 문화와 원주민 권리 회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사파티스타 운동이 일어났다.

이 같은 국제정세에서 출현한 사파티스타 운동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수탈과 착취에 저항하는 좌파운동의 한 부류로 보는 시각에서부터, 500년 식민지 수탈의 역사를 거부하고 정체성 중심의 탈식민적 저항 운동으로 보는 관점까지 다각도에서 연구되어왔다. 그리고 이 같은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주의 붕괴 후 대안적 반자본주의적 사회질서를 추구하는 세력이나 탈식민지적인 원주민 고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적인 사건이자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3 여기서 주체란 알랭투렌(2005)류의 사회적 주체일 수도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가 계급의 범주를 넘어 재현하고 밝혀내려고 했던 ‘사회적 힘’(Woo 2007, 121; Lee 2003, 475)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파티스타 운동이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조건, 즉 멕시코라는 국가 체제 내에서 저항세력으로서 운동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는 사파티스타 운동이 반자본주의 혹은 탈식민적 저항 운동이라는 상징적 의미와는 다른 성질의 범주에서 이해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즉 사파티스타 운동에서 나타나는 반자본주의 혹은 탈식민적 성격과 해석만으로는 현재 라칸도나 정글에서 멕시코 정부군에 둘러싸여 포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파티스타들이 직면하는 세세한 현실투쟁의 이면을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파티스타 운동과 직접적인 대치 전선을 이루고 있는 국가 기구인 멕시코 정부와의 구체적인 갈등 구도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국가란 자본주의 질서를 대변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자 지난 500여 년 간 지속된 원주민 착취와 수탈 방식을 확대 재생산한 억압기구라 할 수 있다.

이는 대안적인 반자본주의 혹은 탈식민적 저항운동이라는 거대담론적 해석이 아닌 억압적인 질서를 담지하고 유지하려는 국가기구와의 대립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운동의 구체적인 다양한 갈등 양상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 시도는 사파티스타 운동의 전략이나 노선의 방향을 파악하고, 최근 사파티스타 진영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적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부분적인 반론의 근거를 찾아보려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분석 방법은 저자가 현지조사 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사파티스타들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주로 국가기구의 억압과 폭력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사파티스타와 같은 ‘반’체제적이고 저항적인 사회 운동적 성격의 연구를 함에 있어, 인류학적인 현지조사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연구방법론으로서의 현지조사연구에 대한 간략한 인류학적 소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사파티스타 운동의 현실

사파티스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2005년 6월 라칸도나의 6차 선언문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발표의 공백이 약 6년여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법 긴 시간동안 침묵을 지키는 셈이다. 이 같은 사파티스타의 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전략적 침묵이라는 수사구를,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활동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까지 EZLN의 대외적 활동은 그 만큼 사파티스타 운동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된 것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본 장에서는 공식발표나 선언문이 아닌 현재 사파티스타 운동이 직면해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사파티스타 운동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사파티스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공간이자 이 운동을 억압하고 해체하려는 기구인 국가가 존재하는 객관적인 현실 조건들을 통해 파악해보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베버의 국가관이 파악하는 강력하고 ‘정당한 폭력을 독점’하는 국가(Elias 2011, 27)라는 체제와 대립하는 운동으로서 사파티스타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크게 다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첫째, 현재 사파티스타의 구체적인 저항, 혹은 투쟁의 대상은 멕시코 정부라는 국가기구에 있다는 객관적 조건이다. 그리고 둘째, 이 같은 조건은 결과적으로 현재 사파티스타 운동의 전략이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있다. 즉 현실적으로 사파티스타 운동은 구체적인 투쟁의 대상이 국가라는 기구에 있으며, 이것이 사파티스타 운동의 구체적인 전략과 노선의 방향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현실적 조건이자 출발점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파티스타 운동을 국가라는 단순한 대립구도를 통해 이 저항 운동 성격의 본질을 단순화시켜 분석하려는 의도이기 보다, 구체적인 투쟁의 공간인 치아파스 라칸도나 정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위기의 양상을 통해 현재 사파티스타 운동의 전략이나 투쟁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사파티스타 운동과 멕시코 정부

1994년 1월 EZLN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형식적으로는 무력 혹은 타협이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 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1월 봉기 직후 멕시코 정부는 대대적인 군사작전으로 EZLN을 압박했고, 이후 1996년 2월 체결된 산 안드레스 협정(Acuerdos de San Andrés de

Larraínzar)이 갖는 화해와 협상이라는 상징성은 곧 허구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원주민의 자치권(*autonomía*)이라는 입장에서 양쪽의 주장과 입장은 팽배했으며, 결국 협상은 실질적으로 결렬되었다. 멕시코 정부의 입장에서 사파티스타들이 주장하는 자치권 보장의 문제는 멕시코라는 국가체제로부터 공식적인 ‘분리’를 전제하는 반국가이데올로기적인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멕시코 정부는 사파티스타 운동의 확산을 막고 영향력을 최소화 시켜야 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의 타협과 평화적 협상을 수단으로 EZLN과의 ‘공생’을 모색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1994년 초 멕시코 정부가 펼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철회한 것은 분명 무장한 사파티스타들의 탁월한 전투능력의 결과이기 보다 국내외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파티스타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타협’과 ‘협상’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합법적 혹은 제도적 수단을 통한 사파티스타 운동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둘째, 비공식적 무장 세력인 민병대 조직을 통한 갈등과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세 번째로는,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이용한 원주민 공동체의 와해 및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사파티스타 운동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첫째, 사파티스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은 1999년에 마무리된 치아파스주의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으로 두드러졌다. 이 개편은 수도 투스틀라 구티에레스(Tuxtla Gutiérrez)를 포함 112개의 시(*municipio*)를 119개로 분할한 것으로, 라칸도나 정글 과테말라 국경지대와 맞대어 있는 3곳이 포함되어 있다.⁴ 이에 대한 멕시코 정부측의 주장은 분쟁지역(치아파스주)의 긴장과 평화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절차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롭게 재편된 시(市)구역의 기능은 무엇보다 제도권의 기득권 정당인 PRI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부군의 주둔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EZLN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계릴라전(*counter-insurgency*) 정책의 일

4 라칸도나 정글의 추가된 3개의 시(市)는 다음과 같다: Benemérito de las Américas, Maravilla Tenejapa, Marqués de Comillas.

부로 보는 견해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⁵

둘째, 사파티스타 운동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협의 하나는 바로 비공식으로 산재해 있는 국가폭력이다. 양측의 전면적인 무력충돌이나 군사적 대립의 부재가 반드시 평화를 암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5월에는 라칸도나 정글지대의 가장 동쪽의 험준한 지대인 라 레알리달(La Realidad) 카라콜(caracol) 부근에서 우루과이 출신의 유명한 문필가인 에두아르도 갈레아노(Eduardo Galeano)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던, 사파티스타 교육 담당 교사였던 호세 루이스(José Luis)가 잠복하고 있던 민병대(paramilitares)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⁶ 사파티스타의 주요 인물이나 이에 동조하는 단체의 활동가나 민간인에 대한 방해, 암살, 공격 등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의 대부분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군이 아닌 원주민들로 구성된 민병대를 이용한 공격과 군사 작전 및 원주민 공동체의 구성원들 스스로의 내분을 조장하는 다양한 분열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1997년 체날호(Chenalhó)시 초칠(tzotzil)원주민 공동체인 악테알(Acteal)에서 일어났던 학살사건으로, 40여 명의 어린이와 여자들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이 공동체는 사파티스타 봉기 직후 EZLN에 대해 호의적이었을 뿐 사파티스타 봉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군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한 원주민 민병대가 주축이 되어 일으킨 학살 사건으로, 이는 원주민을 이용하여 원주민을 집단 학살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1994년 이후 치아파스에서 일어난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었다. 이는

5 1999년 치아파스주의 행정구역 재편과 이를 반계릴라전의 일부분으로 그 정책과 그를 둘러싼 치아파스주의 정치적 상황을 자세히 연구 분석한 논문들은 다음 저서를 참고할 것: Xochil et al.(2007), Remunicipalization in Chiapas; Politics and the Political in Times of Counter-Insurgency, CIESA & IWGIA.

6 관련 기사는 다음을 참고할 것: <http://www.jornada.unam.mx/2014/05/23/politica/013a1pol> 현재 치아파스 사파티스타 운동 관계자들과 연구자들과의 인터뷰 중에도 과거 부사령관 마르코스를 지칭할 때는 이제 갈레아노라는 이름으로 대신하여 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자가 실시한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잠복하고 있던 민병대의 공격으로 사망한 갈레아노는 사파티스타의 주요 중책을 맡고 있던 인물 중의 하나였으며 항상 암살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한다. 마르코스가 그를 추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갈레아노로 바꾸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사실일 것이다.

기득권 정당(PRI)이 원주민 공동체를 포섭하고 사파티스타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재원 및 인프라 지원을 약속하며 이들 공동체를 포섭하는 전략과 맞물리며, 원주민 공동체간의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최근 산 이시드로 라 리베르타드(San Isidro La Libertad)의 원주민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이 같은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 공동체는 사파티스타 운동에 호의적인 공동체로 약 40여 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이 공동체의 교육을 담당하던 2명의 교사가 공동체의 사전협의와 동의 없이 멕시코 정부로부터 교육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동체 내부가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한 사실 해명을 거부하는 교사들과 그 가족들로 인하여 공동체 내부 분열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사파티스타에 동참하는 원주민 공동체의 기본 원칙인 멕시코 정부 측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는 현재 분열을 막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민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일원이었던 2명의 교사의 거취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로 인한 공동체 내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⁷

이처럼 멕시코 정부의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전략은 형식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이지만 내용적으로 지속적인 억압과 국가폭력을 동원하여 운동을 와해시키려는 전략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멕시코 학자들의 평가는 사뭇 비판적이다. 사파티스타 지도부가 선언한 멕시코 중앙정부와의 대화 단절은 운동을 축소시킨다는 비난이나, 사파티스타 내부 진영의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원주민 공동체의 일탈을 가져오고 있다는 입장 등이 그것이다.⁸ 그러나 사파티스타와 이를 지지하려는 멕시코 정부와의 관계는 첨예한 대립 구도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비판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사파티스타 운동을 지속적으로

7 관련 내용은, 저자가 2016년 사파티스타 연구 관계자들과 원주민 공동체 중의 하나인 산 이시드로 라 리베르타드(San Isidro La Libertad)의 주민이자 활동가인 호세(José)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8 위 내용은 현지 국립인류학 연구소의 연구자들과 가진 인터뷰와 면담을 통해 얻은 내용을 요약한 것임(면담일시 2016년 2월).

억압하고 와해하려는 멕시코 정부의 전략은 다양하며, 여기에는 폭력적인 수단과 무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파티스타가 선언한 대화 단절이나 원주민 공동체 내부의 수직적인 위계질서에 대한 평가나 비판에 앞서, 국가와 대립 구도에 있는 사파티스타가 취한 운동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이는 이유이다.

사파티스타 운동의 ‘반정부적 혹은 ‘반체제적 성격은 현지조사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제약과 논쟁의 여지가 많다. 특히 민족지와 같은 인류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연구자의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은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사파티스타 운동 연구와 현지조사

산크리스토폴 텔라스 카사스를 소개하기에 앞서, 저자가 사파티스타 운동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방법론 선택, 그리고 연구자의 윤리적 고민과 사회적 책임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저자의 현지조사에 대한 내용이 왜 산크리스토폴 텔라스 카사스 지역으로 제한되어있는지에 대한 부분적 설명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 사파티스타와 같은 성격의 사회운동 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의 필요성과 의미를 심화시키는 출발점으로 삼기 위함이다.

본 현지조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사파티스타 운동을 수용하는 로컬지역의 현지 분위기와 반응을 관찰하고, 둘째, 사파티스타 운동에 참여하는 현지 활동가 및 연구하는 학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재 이 운동에 대한 연구의 다양한 관점과 평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파티스타 운동에 동참하는 원주민 공동체 혹은 자치지역인 카라콜(caracol)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현지조사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세 번째 단계인 원주민 공동체와 카라콜 지역의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로서 맞닥뜨린 ‘모순’적인 상황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 등은 현지조사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및 의미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다음은 이 같은 인류학적 소고를 중심으로 저자의 현지조사연구의 진행과정과 경과 등을 간단히 기술해 볼 것이다.

*산크리스토발 델라스 카사스(San Cristobal de las Casas)의
'사파티스모'(zapatismo)*

우선 산크리스토발 델라스 카사스는 사파티스타 운동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심 지역이 아니다. 현재 사파티스타들의 활동이나 운동의 본거지는 라칸도나 정글 주위의 원주민 공동체들이며, 산크리스토발 델라스 카사스 지역이나 이 지역에서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오코싱고(Ocosingo)와 같은 지역도 엄밀히 말하자면 사파티스타들의 주요 활동무대라고 볼 수 없다. 두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여전히 사파티스타가 아닌 정당정치(partidista)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크리스토발 델라스 카사스를 이에 대한 사례 연구 지역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크리스토발 델라스 카사스는 사파티스타 운동이 출현한 1994년 1월 1일 이후 사파티스타 운동의 '상징적' 공간이 되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곳은 식민지 지배의 행정기구의 중심이었으며, 공권력이 밀집된 지역이었다. 1994년 이전 원주민들은 이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을 정도로 인종차별과 원주민에 대한 억압이 극심했던 곳이었으나, 1994년 사파티스타 운동은 이 지역을 전혀 다른 곳으로 탈바꿈시켰다.

둘째, 현재 많은 외부인, 방문객, 관광객,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이 지역은 사파티스타 운동 연구 혹은 '관광'을 위한 지리적 출발점이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다양한 국적, 계층, 다른 이념적 성향의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사파티스모'를 만들어내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비록 사파티스타 운동의 본질적 원동력이 원주민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산크리스토발 델라스 카사스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셋째, 바로 위의 조건들은 수많은 '사파티스타' 운동을 연상케 하는 집회, 데모, 항의 등이 이 지역에서 연일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즉각적으로 사파티스타 운동의 '실체'와 연관되면서 이 지역은 사파티스타가 없는 '사파티스모'가 번성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산크리스토발 델라스 카사스는 지난 수백 년간 식민지 행정중심지역 역할을 해오며 고착시킨 인종차별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지역이자, 현재 사파티스타 운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라칸도나 정글 지역의 운동 '현실'과는 대비되는 '사파티스모'를 재생산하고 있는 역설적인 장소이다.

이에, 이 지역의 조건들은 현재 사파티스타 운동이 치아파스 로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운동을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선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긴 시간의 체류기간은 아니지만 로컬 지역 주민과의 즉흥적 인터뷰, 만남, 일상생활의 공유 및 관찰 등으로 충분히 수집 가능한 지역 정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1994년 사파티스타 운동 전후의 산크리스토발 텔라스 카사스의 모습을 간략하게 기술해 볼 것이다.

산크리스토발 텔라스 카사스의 풍경⁹⁾

16세기 초 디에고 데 마사리에고(Diego de Mazariego)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산크리스토발 텔라스 카사스는 스페인 식민지의 행정관리 및 사법 등을 담당하는 중심지였다. 당연히 이곳은 스페인 지배자들의 거주지이자 지배 권력이 집중된 곳이었으므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공포와 수탈의 장소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도 크게 변함이 없었다. 식민지 지배의 중심지였던 산크리스토발 텔라스 카사스에는 원주민이 거주할 수 없었으며, 이곳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들은 콜레토스(coletos)에게¹⁰⁾ 밀시와 경멸의 대상이었기에 길을 걸을 때도 얼굴을 숙여야 했고, 감히 눈을 마주쳤다가는 매질과 발길질을 감내해야 했다. 간혹 그들이 수확한 과일, 채소 혹은 수공예품을 팔기 위해 들르는 도심의 상점에서조차 흥정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며, 그들이 가져온 물건은 콜레토스가 일반적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이 같은 현실은 1994년 이전까지 계속되었으나, 1994년 1월 이후 산크리스토발 텔라스 카사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마야 전통의상을 입고 자유롭게 거리를 누비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공예품 가격을 흥정하는 노련한 모습의 원주민 여성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고작 45살 정도의 원주민 어린아이들은 외국인들

9 본장에서 기술되는 산크리스토발 텔라스 카사스의 현재 풍경이나 인용되는 인터뷰는 저자가 2주간 실시한 사전 현지조사 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며, 인터뷰 자료의 경우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10 ‘콜레토스’는 1994년 1월 사파티스타 운동 출현 이후 멕시코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치아파스의 불평등하고 열악한 사회적 현실, 특히 과거 식민지 수도였던 산크리스토발 텔라스 카사스의 인종차별적이고 비참한 현실을 대변하는 표현이자, 동시에 이곳의 거주민(원주민이 아닌)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어려워하기는커녕 노련한 상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1994년 이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분명 이곳은 인종차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원주민들은 자유로워 보였다. 적어도 원주민을 매질하거나 그들을 멸시하는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매를 맞는 원주민들이 많았다는 주변의 증언들을 감안하면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도시였다.

1994년 이후의 또 다른 뚜렷한 변화는 이곳 산크리스토팔 텔라스 카사스에 몰려드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존재이다. 그리고 이들을 겨냥한 수많은 관광 상품을 파는 상점, 식당, 호텔 등이 준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사파티스타 운동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티셔츠, 모자, 엽서 등이 고가에 팔리고 있다. 급기야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안다도르’(Andador)가 만들어졌으며, 세 개나 되는 안다도르는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발견되는 노천카페 거리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도심의 모습이다. 심지어 안다도르의 한켠에는 “길위의 시”(street poet)라는 문구와 타자기를 준비한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 여성의 모습도 눈에 띈다. 1994년 이후의 산크리스토팔 텔라스 카사스는 과거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자유’와 ‘낭만’이 넘치는 듯 보인다.

제3세계의 이국적인 정취와 과거 식민지 도시를 관광하는 목적이라면 이곳은 손색없는 장소지만, 혹여 20여 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파티스타의 흔적을 찾아 이곳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적지 않은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사파티스타의 흔적을 찾아 산크리스토팔을 방문한 뒤 기대와 전혀 다른 도시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채 돌아가야 했던 한 연구자의 글은 이 지점에서 흥미롭다.¹¹

산크리스토팔 텔라스 카사스에서는 사파티스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부인들은 “이곳에서 스키모 마스크를 쓴 사파티스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한 주민의 안타까운 증언은 과장된 것이 아닐 것이다. 잘 정돈된 질서를 흐트리는 움직임의 흔적은 간혹 길거리에 “국가폭력 중단”이라는 항의 문구가 페인트로 칠해진 벽면을 발견하는 것이 전부였으며, 이마저도 하루가 지나면 누군가에 의해 다시 말끔히 지워지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11 특히 사파티스타의 흔적을 찾아 산크리스토팔 텔라스 카사스를 방문했던, 윤여일(2009)의, “타인의 목소리, 사파티스타의 목소리”라는 글은 이 같은 점에서 인상적이다.

과거 산크리스토팔 텔라스 카사스는 원주민들에게는 공포와 인종차별이 시작된 전근대적인 식민시대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붐비며 이국적 정취를 배경으로 하는 상업이 번성하는 장소가 되었다. 1994년 사파티스타 봉기에 ‘매료’되어 이곳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부인들의 존재가 이곳을 유명한 관광지로 만든 셈이다. 사파티스타 운동을 지지하여 모여든 그들의 존재가 역으로 자본주의적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들을 위해 이곳의 콜레타스들은 다양한 관광 상품과 상점,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등을 구축해 갔기 때문이다.

상권은 번성하여 외지의 사업가들은 레스토랑과 호텔 등을 개업하기 위해 자본을 들여오기도 한다. 사파티스타 운동 덕분에 콜레타스 뿐만 아니라 외지의 사업가들도 자본 증식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리의 ‘미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밤에만 허락된 ‘노점’이나, 수공예품이나 면직물 등을 직접 들고 다니는 ‘잡상인’은 모두 원주민들이었으며, 산크리스토팔 텔라스 카사스의 너무 익숙한 현재의 모습이다.

약 20여 년 전 사파티스타 봉기를 시작으로 형성된 산크리스토팔 텔라스 카사스의 사파티스모의 ‘신화’는 역설적으로 치아파스 라칸도나(Lacandona) 정글의 어딘가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인 운동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물론 식민지 도시의 평범한 일상과 모습이 사파티스타 운동의 의미를 투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파티스타 운동의 중심지로부터 지근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풍경은 마치 사파티스타 운동이 극복하려고 했던 자본주의적 생활방식과 원주민에 대한 수탈방식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당당한 모습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사파티스타 운동의 ‘흔적’

산크리스토팔 텔라스 카사스는 1994년 1월 1일 EZLN의 등장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으며, 사파티스타 운동이 한편으로는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사회운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탈근대적인 원주민 운동의 한 흐름으로 평가되면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현재 사파티스타 운동의 ‘상징적’ 중심지로 알려지면서 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산크리스토팔 텔라스 카사스는 이제 그저 평범한 ‘유명’관광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공간이 되었다.

콜레타스들의 증언처럼, 분명 1994년 이후 이곳에서 원주민들을 발견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과거에 흔히 보이던 매질을 당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 원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반자본주의 운동의 상징성을 갖는 대안사회운동의 ‘상징적’ 공간이기에 이곳은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공간이 되어 있었으며, 원주민 고유의 세계를 회복하려는 탈식민적 운동의 거점이라고 하기에는 이곳 상당수의 원주민들이 ‘근대적’ 삶의 방식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미 산크리토발 텔라스 카사스 외각 북쪽 산동성이에는 제법 큰 규모의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자신들의 공동체를 떠나온 원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¹²

원주민 공동체를 떠나 이곳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사정은 제각각이다. 공동체와의 불화에서부터 종교적 이유, 혹은 근대적 삶을 추구하는 개인적 열망이나 기대 등, 원주민들이 공동체의 삶 대신 개인의 삶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원인은 다양하다.¹³ 산크리스토발 텔라스 카사스의 ‘유명세’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이곳을 찾는 이유가 되었다면, 산간지역의 공동체를 떠나 이주해온 원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소가 되어주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사파티스타 운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혹은 일정한 수준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농민·원주민 단체들의 집회 장소이자 점거농성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2월 15일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산크리토발 텔라스 카사스 남쪽 카란사지역(Región Carranza)의 에밀리아노 사파타 농민단체(Organización Campesina Emiliano Zapata, 이하 OCEZ-RC)는 대성당 앞에서 1주일 이상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카란사 지역의 토지문제, 교통수단 제공, 교육 및 의료시설 등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교황이 도착하기 며칠 전 치아파스주 정부와의 협상이 ‘극적으로’

12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산크리스토발 텔라스 카사스 북쪽의 경계선인 이 구역은 산토도밍고 수도원(Santo Domingo 수도원, 북쪽 경계선에 위치함)을 기준으로 원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하여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콜레토스들에게 원주민들은 한편으로는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언제든 반란을 일으켜 도심을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Colonia Maravilla(마라비아 구)를 포함 북쪽 외각에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떠나 도시로 나와 정착한 많은 원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

13 이와 관련, 마야 원주민들의 삶의 변화, 특히 개종(종교적 이유)의 영향으로 마야원주민 공동체에 일어난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세밀하게 인류학적으로 조사한 Falla(2007)의 연구와 Farfán et al.(2011)을 참고 할 것.

타결되어 이들의 항의 집회는 막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사파티스타는 현재 멕시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 어떤 대화(dialogo)도 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¹⁴ 이 점을 고려하면 치아파스주 정부와의 협상을 유도한 이 단체는 현재 사파티스타 운동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문제는 이들 단체의 요구나 저항방식은 곧바로 사파티스타 운동의 일부로 이해되거나, 역으로 사파티스타와 전혀 다른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농민·원주민 단체의 성격이 자칫 사파티스타 운동의 본질로 곡해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실에 있다.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그들의 생각이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은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응답한 한 마야 토칠 출신 원주민과의 인터뷰는 이 점에서 인상적이다.¹⁵

사파티스타 운동의 ‘상징적’ 장소로 알려진 산크리스토팔 텔라스 카사스의 아이러니한 현실은 사파티스타가 아닌 수많은 다른 원주민이나 농민단체들의 활동중심지가 되어가면서, 이들의 개별적 항의, 모임, 가두행진 등이 모두 사파티스타가 없는 ‘사파티스모’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이곳을 사파티스타 운동이 만들어낸 ‘해방’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자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신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현실이다.

산크리스토팔 텔라스 카사스의 자본가들은 거꾸로 사파티스타 봉기를 고마워해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파티스타가 없는 사파티스모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한 그들의 상권은 유지될 것이며, 비록 사파티스타들의 반체제적 운동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사파티스타들에게 주목되어 있는 세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원주민·농민 단체나 조직에 의해 이들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차용될 것이다.

저자는 마침 사파티스타 원주민 공동체 의료지원을 도와주고 있는 한 활동가와 대성당 앞 농민집회장소를 함께 지나게 되었다. 그는 속삭이듯 말한다. “저들은 사파티스타가 아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이미지를

14 참고로, 사파티스타 ‘실무’관계자들은 ‘협상’(negociación)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사파티스타는 멕시코 정부를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오직 대화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15 사파티스타 운동에 동조하는 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복면이나 스킨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곧바로 사파티스타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종종 이들을 사파티스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발생하는 과격한 시위(상점약탈, 폭력행위)의 책임을 이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용하고 있는 지. 이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주 종종 벌어지자'. 그의 말에 나는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사파티스타라고 할 수 있지?” 의외로 그의 대답은 명료했다.

“곧어서 딱딱해져버린 토르티야와 커피로 정글의 추위와 배고픔을 함께 겪으며 원칙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파티스타라고 할 수 있겠어? 난 집과 차가 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것이 내가 비록 의료지원을 위한 약간의 행정적 일을 대신 처리해 주고 그들을 적극 지지하지만, 내가 나를 사파티스타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야”.

아무래도 사파티스타 운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은 산크리토발 텔라스 카사스에서 버스를 두, 세 번은 갈아타면서 서북쪽을 향해 하루 종일 이동해야 도착하는 라칸도나 정글의 원주민 공동체와의 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아직 나의 사파티스모를 정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지조사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소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크리스토발 텔라스 카사스의 일상적인 풍경이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이 같은 목적을 위한 현지조사라면 더욱 그러하다. 지역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만남, 대화, 그리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지역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의 관찰 등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수집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파티스타 운동을 연구하는 학자, 혹은 활동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나 면담도 동일한 연구 주제와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는 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저자의 경우에도 치아파스주 국립인류학 연구소의 연구자들과 그들의 학문적·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받은 면담자들의 인터뷰는 충분했으며,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생기는 연구 방법론적 문제는 바로 제3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파티스타 운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민 공동체들과 자치구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카라콜에 대한 심층 현지조사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단순히 이들 지역의 ‘접근성’이나 현지조사 정보수집의 ‘가능성’과는 다른 범주의 문제이다.

인류학자들이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들의 이중적 역할, 수집과정에서의 연구자의 윤리적 문제와 수집된 자료가 실천적 지식으로 얼마만큼 사회운동의 현장에서 유효한가라는 문제인 것이다. 현지 조사 자료가 가지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로컬 정보라는 특징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운동 연구의 관점에서 인류학적 조사를 수행했던 많은 학자들에게서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갈등의 성질이기도 하다(Hale 2015; Leyva 2015; Laako 2015; Casas et al. 2015).

이와 관련하여 특히 Leyva(2015)의 접근을 살펴보자. 그녀는 1994년 사파티스타 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 운동을 연구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학자, 활동가, 지지자들에 의해 형성되는 학문적 영역과 이 운동에 동참하는 실천적 영역의 공통분모는 사파티스타 운동을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되는데 공헌한 바가 있었다고 인정한다. 이와 동시에 그녀는 사파티스타 운동 공간의 참여한 갈등과 대립적인 상황에서는 연구자들이 수집한 로컬 자료들이나 정보, 그리고 개인적 분석들까지도 경우에 따라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게 되는 위험성에 대해 진지한 문제의식으로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전면적인 무력충돌이 아닌) 저항도의 전쟁 상황 중에 인류학방법론의 강점인 민족지 연구의 결과물이 어떻게 양날의 칼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알았다. 민족지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지역의 자세한 정보와 사파티스타들의 세세한 정보들은 거꾸로 사파티스타 운동을 공격하는 심리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Leyva 2015, 211).¹⁶

이 같은 문제는 저자가 원주민 공동체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이나 카라콜 지역의 사파티스타 면담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산크리스토팔 텔라스 카사스에서 진행되었던 학자들과의 인터뷰나 면담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으며, 자료공개에 대한 조심스러운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 2003년과 2004년 사파티스타 연구를 위해 이 지역을 방문했던 한 연구자의 회고는 이 같은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16 괄호와 번역은 저자에 의한 것임.

(사파티스타 운동이) 진압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반’비밀조직의 특징을 갖는 이 조직의 특징은 사파티스타를 지지하는 대중기반의 조직들과도 (조차)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녹음하고 비디오로 촬영한 정보들이 정글에 상주하고 있는 정부군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Vergara 2007, 42).¹⁷

이처럼 사파티스타 운동과 같이 ‘반’체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이라면 연구자의 정치적 관점, 사회적 가치 등은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친사파티스타 연구자만이 사파티스타 운동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충고’는 저자가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인 나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사파티스타 운동 관계자들의 시선과 간혹 불신을 동반한 그들의 태도가 결코 ‘부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파티스타와 같은 사회적 투쟁 성격이 짙은 운동에 대한 연구는, 한편으로는 현지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미시적이고 맥락적인 로컬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자가 단순히 학문적 입장과 관점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인식론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특히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는 Hale(2015)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는 아무리 ‘선의의 정치적 동기’를 바탕으로 시작된 연구라 할지라도 현지의 맥락적인 환경과 유리된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해 주의를 요한다(Hale 2015, 311).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운동이 찾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의도나 동기, 심지어 ‘연대’라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일관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정치적 원칙들”이라는 Gustavo Esteva의 주장은 이 지점에서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¹⁸

인류학적인 현지조사연구는 로컬 지역의 맥락성과 개별적인 성질을 파악하는데 있어 텍스트나 담론 중심의 연구를 보완하고 보충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론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사파티스타 운동과 같이 사회적 투쟁과 저항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이 같은 연구 방법론의

17 괄호안의 내용과 번역은 저자에 의한 것임(Leyva 2015, 211에서 재인용).

18 Hale(2015, 311)에서 재인용된 내용이며, Hale이 차야파스 국립인류학연구소(CIESA)에서 열린 세미나(2009)에서 Esteva와 주고받은 내용을 요약한 것임.

적용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문제의식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천인류학의 분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인류학의 사회적 참여와 책임 규정의 문제는 사파티스타 운동 연구를 인류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한 끊임없는 논쟁과 고민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저자의 후속 연구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사파티스타 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요 연구 흐름을 중심으로 멕시코 치아파스라는 구체적인 공간과 객관적인 현실적 조건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사파티스타 운동을 둘러싼 연구경향, 혹은 담론이 역으로 이 운동의 역동적인 성격을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파티스타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익히 알려진 산크리스토발 텔라스 카사스의 아이러니한 풍경이 사파티스타 운동을 과거의 ‘유물’로 박제화 하고, 수없이 몰려드는 외국인들의 ‘관광상품’의 일부가 된 것처럼 말이다. 타자의 시선이 만들어낸 산크리스토발 텔라스 카사스의 ‘신화’는 사파티스타가 없는 사파티스타 운동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가상현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사파티스타 운동을 반자본주의 대안운동으로만 보는 접근은 사파티스타 운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멕시코 사회의 개별적 맥락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파티스타 운동을 자율주의적인 대안운동으로 선구정하고 자율주의 운동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를 사파티스타 운동의 한계로 역 규정하며, 자율주의 운동 전반의 특징과 한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파티스타 ‘운동’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 일반에 대한 기권적 태도, 멕시코의 수많은 (조직)노동자들을 지도하지 못했다는 비판, 그리고 멕시코 사회에서 사파티스타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 반해 남부 지방에 고립되어 있으며, 멕시코 노동자 계급과의 긴밀한 연계나 지원 없이 원주민들의 기반위에 있다는 점을 이 운동의 한계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Lee 2010, 149-150).

사파티스타 운동은 멕시코 제도권 정치 일반의 모순과 억압적인 국가기구라

는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국가폭력이 야기한 반정부적 성격이 분명한 원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운동이었다. 굳이 아니발 키하노(Aníbal Quijano)의 식민지 권력 기반(Colonial Matrix of Power)의 개념을 차용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축적된 식민지 질서의 잔재는 원주민을 철저하게 제도권 정치에서 배제시켰고 목소리 없는 ‘주체’로 전락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파티스타 운동은 차아파스 원주민 공동체의 기반위에 성장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단순히 인종적 갈등이 만들어낸 차별과 갈등의 부산물이기 보다 역사적으로 차아파스 원주민 계층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처지와 그 객관적 조건들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파티스타 운동이 멕시코 도시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는 근대 서구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 잣대를 기준으로 원주민 기반위에 자본주의 사회질서의 ‘수탈’과 ‘억압’의 저항으로 성장한 사파티스타 운동의 본질을 인종적 성격의 운동으로 축소시키는 오류를 낳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재 사파티스타 운동을 탈근대적 원주민 운동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규정하기에도 여전히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EZLN이 자치구역이라고 선언한 32개의 시에 존재하는 원주민 공동체의 약 10%만이 사파티스타 공동체라고 본다면 나머지 90%는 전략적 혹은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단 사파티스타 운동과의 관계를 염두하지 않고서도 수많은 원주민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 혹은 협력 관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¹⁹

원주민 공동체에 대해 갖는 ‘사회적 갈등이 부재하는’ 유토피아적 세계관은 수많은 원주민 공동체의 다양한 선택과 현실에 직면한 삶과 유리된 관념일 뿐이다. 스페인 식민지 기간에도 식민지 권력과 결탁한 부유한 원주민 계층은 엄연히 존재했고, 이들은 자신들의 부족을 착취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Jung

19 2004년 1월 “불편한 진실”(El documento incómodo)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된 자료에 의하면 차아파스 현재 총 119개의 시(市) 중 EZLN의 통제 아래 있는 구역은 약 35개이며,¹ 약 6,200여개 원주민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약 9%에 해당하는 570 여개의 원주민 공동체가 사파티스타와 적극적인 협조관계에 있으며, 이중 80%는 5개의 시(Altamirano, Aldama, Chillón, Chanal, Comitán)에 밀집되어 있다. 가장 많은 공동체가 있는 곳은 라칸도나 정글의 중심부에 위치한 오코싱고(Ocosingo)의 주위에는 약 140여개의 사파티스타 공동체가 모여 있다. [위 내용은 사파티스타에 대한 군사조직, 명단, 통제구역 등 아주 자세한 정보가 수록된 비공식 자료집으로, 작성 주체인 멕시코 정부기관이 사파티스타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자료로 보이며, 저자가 접근할 수 있었던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구성 하였다.]

2015, 145)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사파티스타 운동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5,500여개의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처럼 사파티스타 운동 연구의 주요 해석과 현실 운동에서 발생하는 간극은 좁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간극의 해소는 사파티스타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과 그것의 기반이 되는 객관적인 현실조건이 연구의 출발점이 될 때 가능해 보인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과거의 희망적인 ‘전망과 ‘예전’에 비해 다소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예전과 같지 않은 ‘축소’된 대외적 활동을 현실투쟁의 포기로 이해하는 가 하면, 멕시코 정부와 일체의 대화를 중단한 사파티스타의 선택은 고립을 자초하는 전술이라는 거침없는 비판까지 다양하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이 같은 비판과 평가의 성격이 얼마만큼 현실의 객관적인 투쟁 조건과 현지의 맥락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켰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사파티스타의 멕시코 정부와의 대화 단절이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비판은 마치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거부한 사파티스타 진영의 일방적이고 편협한 결정이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논지의 비판이었다. 게다가 사파티스타 내부 진영의 엄격한 규율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반체제적 성격의 사파티스타 운동에 동조하는 원주민 공동체, 활동가 혹은 단체를 향한 직·간접적인 테러, 암살과 같은 폭력이 연이어 일어나는 현실에서 결코 느슨하게 조직된 운동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파티스타 운동 연구에 대한 이론적 흐름이 구체적으로 재현해내지 못하는 사파티스타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조건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류학적인 현지조사를 통한 대상 지역의 구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즉 사파티스타 운동 기반이 되는 원주민 공동체의 성격, 구성, 전망 및 일상적 투쟁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성격 및 해결과정과 계기 등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이 같은 종류의 연구는 일반적인 이론적 접근이나 텍스트를 통해서 얻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사파티스타 운동의 ‘반체제적’ 성격은 현지조사와 같은 미시적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환경적인 제약을 형성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파티스타 운동과 같은 역동적인 사회 운동 연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류학적 현지조사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동시에 현지조사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문제의식의 성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성질의 것이다. 이를 둘러싼 고민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물들이 인류학적 연구의 필요성과 의미를 재고해나가는 비판적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 Baronnet, Bruno, et al.(2011), *Luchas 'muy otras', Zapatismo y autonomía en las comunidades indígenas de Chiapas*, Colección Teoría y Análisis.
- Casas, María Isabel, et al.(2015), *Fronteras borrosas: reconocer las prácticas de conocimiento en el estudio de los movimientos sociales*, [Xochitl, Leyva Solano, et al.(2015), *Prácticas otras de conocimiento(s), Entre crisis, entre guerras(Tomo II)*, Cooperativa Editorial Retos].
- Cho, Young-Hyeon(2015), “The Indigenous Movements in Latin America: A Comparative Study of Zapatista Movement and the Confederation of Indigenous Nationalities of Ecuador,” *Revista Iberoamericana*, Vol. 26, No. 3, pp. 317-356.
- Cho, Young-Shil(2004), “On the Philosophical Bases of Zapatista Movement of National Liberation,”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7, No. 3, pp. 321-349.
- Chung, Hea-Joo(2005), “Rethinking about Cultural Human Right of Mayan Aborigin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8, No. 3, pp. 55-82.
- _____(2011), “Rationale for the Yucatan’s Caste War,”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4, No. 1, pp. 129-153.
- Collier and Quaratiello(2005), *Basta: Land and the Zapatista Rebellion in Chiapas*, Food First Books.
- Elias, Norbert(2011), *The Civilizing Process*, Hangilsa.
- Falla, Ricardo(2007), *Quiché Rebelde*, Guatemala: Universidad de San Carlos de Guatemala.
- Farfán, et al.(2011), *Diversidad religiosa y conflicto en Chiapas: intereses, utopías y realidades*,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 CIESA.
- Gilly, Adolfo(2014), “Mataron a Galeano, el zapatista,” <http://www.jornada.unam.mx/2014/05/23/politica/013a1pol>
- Hale(2015), *Entre el mapeo participativo y la “geopiratería”: las contradicciones de la antropología comprometida*, [Xochitl, Leyva Solano, et al.(2015), *Prácticas otras de conocimiento(s), Entre crisis, entre guerras(Tomo II)*, Cooperativa Editorial Retos].
- Jean, Piel(2005), “Nacionalismo sin Nación. El siglo XIX latinoamericano, entre utopías nacionalistas y realidades regionales,” in Olivera and Palomo(eds.), *Chiapas: De la independencia a la revolución*, Publicaciones De La Casa Chata.
- Jung, Ina(2015), “A Historical Consideration and Perspective of Indigenous Municipality in Guatemala,” *Revista Iberoamericana*, Vol. 26, No. 1, pp. 131-172.
- Kim, Mee-Kyung(2010), “Globalization and Anti-Globalization in Latin America: The Zapatista Revolt and Justice Globalism,” *Inmunyeongu*, Vol. 60, pp. 101-144.
- Kim, Yoon-Kyung(2008), “State, Race, and Gender of IberoAmerica; The Zapatista Revolt in Mexico: The Indigenous Movement towards the New World,”

- Seoyangsaron*, Vol. 97, pp. 85-115.
- (2013), “The Indigenous Movement for Autonomy in Mexico: Focused on the Zapatista Movement,” *Revista Iberoamericana*, Vol. 21, pp. 133-171.
- Laako, Hanna(2015), *En las fronteras del zapatismo con la academia: lugares de sombra, zonas incómodas y conquistas inocentes*, [Xochitl, Leyva Solano, et al.(2015), *Prácticas otras de conocimiento(s), Entre crisis, entre guerras(Tomo II)*, Cooperativa Editorial Retos].
- Lee, Jung-Gu(2010), “A Study on the Autonomist Movements in Context of Antiglobalization,” *Marxismyeongu*, Vol. 7, No. 2, pp. 131-160.
- Lee, Seong-Hun(2003), “Outcomes and Limitations of 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6, No. 2, pp. 471-483.
- Mendoza, Víctor Campo(1999), *Las insurrecciones de los pueblos indios en México: La rebelión Zapatista en Chiapas*, Cuellar.
- Nash, June(1995), “The Reassertion of Indigenous Identity: Mayan Response to State Intervention in Chiapa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0, No. 3, pp. 7-42.
- Park, Tae-Ho(2004), “For Memory and Against Memory: Revolutionary Theory of Zapatista,” *The Radical Review*, Vol. 2, pp. 128-154.
- Peláez, Severo(2011), *Motines de indios*, F&G editores.
- (2013), *La patria del crill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Sin, Chung-Hwan(1999), “Marcos-New Revolution of Zapatista,”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pp. 178-198.
- Song, Ki-Do(2001), “Zapatistas, They are Fighting for New Struggle,” *Inmulguasasang*, Vol. 37, pp. 184-193.
- Woo, Suk-Kyun(2007), “Estudios subalternos latinoamericanos y los derechos culturales,”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0, No. 2, pp. 111-134.
- Xochitl, Leyva Solano(2007), *Remunicipalization in Chiapas: Politics and Political in Times of Counter-Insurgency*, CIESA & IWGIA.
- (2015), *Academia versus activismo, Repensarnos desde y para la práctica teórica-política*, [Xochitl, Leyva Solano, et al.(2015), *Prácticas otras de conocimiento(s), Entre crisis, entre guerras(Tomo II)*, Cooperativa Editorial Retos].
- Yoon, Yeo-Il(2009), “Tainumoksory, zapatistamoksory,” *Inmulguasasang, January*, pp. 152-170.

Article Received: 2016. 04. 19.

Revised: 2016. 05. 20.

Accepted: 2016. 05. 20.